

‘고려인 동포’를 도와주세요

고려인마을, 우크라이나 가족 걱정에 ‘발 동동’...항공비 마련 등 무사귀환 모금운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인근 국가로 피란하면서 광주 고려인 마을의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 과정에 광주 고려인 마을 동포가 루마니아까지 들어가 우크라이나에서 피신한 아들을 데리고 광주로 돌아온 사실이 알려져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14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동포 최비탈리(64)씨 가족은 손자 최마르크(13)군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인근 몰도바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르크군의 어머니인 최아나스타시아(36)씨가 현지를 찾아가 무사히 광주로 데리고 왔다.

최마르크군이 우크라이나 탈출 6일 만에 무사히 광주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려인마을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고려인 가족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쳤다.

마르크군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했다는 소식을 접한 지난 10일 최비탈리씨의 며느리이자 마르크군의 어머니인 최아나스타시아씨는 루마니아로 떠났다.

한국을 출발한 최 씨는 터기를 거쳐 루마니아로 들어갔고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몰도바를 거쳐 루마니아에 도착한 아들을 만날 수 있었다. 루마니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비자를 받은 최씨 모자는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최씨는 가장 먼저 최비탈리씨와 전화를 통해 무사 귀환한 손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기쁨을 나눴다.

더불어 최마르크군과 같은날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고려인마을의 남루이자(여·58)씨 손녀인 남아나타(10)양에게 항공비가 전달돼 다음주께 광주로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고려인마을에 도착한 최 씨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진행해 입국비자를 신속히 발급해 준 루마니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도움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하지만 항공비를 마련하지 못해 눈물을 삼키는 고려인마을과 연고를 가진 동포들의 애타는 심정을 알기에 마냥 기쁨을 들어낼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려인마을은 우크라이나 고려인동포 돕기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모금된 금액은 우크라이나를 탈출했으나 항공비를 마련할 수 없어 애태우는 가족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산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무국적자로 평생 살아간다 간신히 전정을 잠깐이라도 피했으나 고려인동포임을 증명할 여권이 없어 입국비자 조차 발급받지 못해 애태우는 고려인동포들의 가려진 삶에 관계부처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마을 방범용 CCTV 든든하네

무안 경찰, 관제용 대비 90% 저렴...춤추는 방범 기대

경찰이 저비용 방범용 CCTV확대를 통한 안전 마을 조성에 나섰다.

14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노린 CCTV 설치 요청이 마을별로 잇따르고 있지만 관제용 CCTV 한 대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 가량의 고비용이 들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무안군에는 1099대의 관제용 CCTV가 운용되고 있다.

무안경찰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고가의 관제용 CCTV 대신 저렴한 비용에 드는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마을 방범용 CCTV는 100-200만원 수준에서 설치 가능하면서도 고효율의 화질을 확보할 수 있어

춤추는 방범망 확보를 기대 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계산이다.

경찰은 각 마을이장을 상대로 서한문을 발송해 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지역기업, 농협, 마을발전기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무안군과 군의회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협력키로 하고 조례 제정 등을 검토중이다.

박삼현 무안경찰서장은 “마을 방범용 CCTV 설치는 고령화 되는 시골마을의 농수산물 절도, 노인 실종사건, 강력범죄 등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남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인 어르신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북구-전남대, K-디지털 플랫폼 인재 양성 나서

광주시 북구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K-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신기술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디지털 의료, 헬스케어 등의 체험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북구는 전남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10억 원, 오는 2026년까지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과 주민 체험을 위한 공간을 구축, 디지털 플랫폼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쓴다.

특히 청년, 미취업자, 관련 기업 재직자 등에게 바이오 3D 프린팅, 메타버스 가상의료, 디지털 치료제, AI 헬스케어 등 산업 현장 맞춤형 훈련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북구와 전남대학교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남구, 시민 통일강사 ‘평화 도슨트’ 양성

광주시 남구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1기 평화 도슨트’를 본격 양성한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시민 통일강사로 활동할 제1기 평화 도슨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남북교류 및 한반도 평화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슨트 선발된 주민은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

과정과 심층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교육을 완료한 주민은 수료증이 발급되며 남구 내 초·중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주민 모임 등을 대상으로 통일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접수 마감일 전까지 남구청 8층 대외협력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kmjkr@korea.kr), 팩스(062-607-2155)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서구,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합동단속

광주시 서구는 14일 “평안을 유발하는 불법 구조변경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으로 구조 변경된 오토바이를 경찰,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서구는 지난해 두차례 합동단속을 실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물론, 오토바이 판매업체 및 배달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조변경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서구는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튜닝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2000원 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의 휘발유 가격이 2045원으로 표기돼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복합처방 약물 부작용 예측기술 개발

지스트 연구팀 ‘DeSIDE-DDI’ 인공지능 모델

지스트 연구진이 여러가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예측 기술을 개발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남호정 교수 연구팀은 유전자 발현 데이터 기반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복합처방의 주 대상이 환자와 고령층임을 고려할 때 약물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신약 개발 단계에서 관찰되는 빈도가 낮아 부작용을 사전에 알아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부작용 예측 모델들이 개발돼 왔으나 신약

개발 단계의 새로운 약물과 시판중인 약물 사이의 부작용 예측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 기작을 해석해 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약물 처리 유전자 발현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약물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DeSIDE-DDI’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기존 관련 연구들과 비교해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며, 약물 간 상호작용과 관련된 유전자를 제시해 줄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원리를 해석 가능하게 해준다는 강점이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든든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